

書 評

Economic Survey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 Study in Methodology—

by *Prafulla Kumar Mukherjee*

1960, Asia Publishing House, New York

嚴 琦 燮

(經濟企劃院·財經事務官)

I

Prafulla Kumar Mukherjee 博士은 Calcutta 와 Oxford 大學校에서 教育을 받은 後 數年間 Calcutta 의 Indian Statistical Institute 에서 應用經濟學을 研究하였다. 또한 Oxford 大學校에서 農業經濟學 및 應用統計學博士學位를 받은 博士은 農業經濟學科主任教授까지 歷任한바 있는 Delhi 大學校 經濟大學과 大學院에서 10餘年間に 걸쳐 農業經濟學과 應用統計學을 教授함으로써 教授 내지 分析實務家로서 印度의 가장 著名한 世界的인 經濟學者로 알려져 있다. 現在는 印度 食糧農業省 經濟統計局의 經濟課長 및 經濟統計顧問으로 在任中이면서 印度의 長期經濟計劃에 至大한 貢獻과 役割을 다하고 있음은 이미 內外에서 높이 稱頌되고 있는 것이다.

Mukherjee 博士가 *Economic Survey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 A Study in Methodology* “低開發國의 經濟調查方法論研究”를 著述하게 된 動機는 거의 모든 低開發國이 低開發經濟의 機能과 變遷에 대한 農村調查가 不滿足스럽다는데 있다고 辯明하였다. 즉 各 異質의 經濟機能에 대한 劃一的인 分析을 하지 않으면서 單純한 實態把握 및 計數蒐集에만 精力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緣由하여 同書는 그와 같은 經濟調查上의 基本的인 缺陷을 克服하기 위하여 方法論을 提示코자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意圖에서 博士는 後進農村經濟의 特性을 勘案하여 各種 經濟的 概念의 聯關性을 實證의으로 論究하여 이를 다시 國民經濟의 全體循環過程에 適用시켜 보았으며 따라서 農村經濟의 安定을 위한 具體的 方法 그리고 資料蒐集方法 및 分析方法을 研究 提起하였다.

低開發經濟에 있어서 經濟調查方法論의 研究는 經濟體制를 動態的 側面에서 把握 내지 再定義하여 이를 經濟開發의 基本概念으로 갖자는데 그 目的이 있다. 따라서 經濟體制를 위한 研究에는 반드시 調查方法論研究가 先行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Mukherjee* 教授가 “低開發國의 經濟調查方法論研究”를 著述함에 있어서도 印度의 農村經濟를 實證의 土台로 하여 調查方法 내지 經濟體制의 動態的 評價方法을 研究하였다. 즉 印度의 農村經濟는 自給自足的 生業段階에서 他經濟와의 相互依存의 段階로 變質되고 있는가의 問題를 確然히 分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調查分析方法을 研究함에 있어서 從來의 微視的 分析의 手段을 避하고 巨視的 分析方法을 擇하였음은 전연 새로운 業績인 것이다.

Mukherjee 教授가 同 方法論研究를 印度의 農村經濟에서 提起한 理由는 主로 다음과 같은데 있다. 즉 첫째 印度에 있어서 經濟統計에 대한 調査는 原理나 體制에는 根本的으로 接近하지 않고 西方工業經濟에 있어서의 方法論에 依存할 뿐더러 印度의 經濟構造와 그 機能에 대한 正確한 原則이 無視되고 있다. 둘째 公·私統計機關에서 發表한 資料上의 數多한 誤謬

와 同時에 統計知識의 不足에 緣由하는 資料源의 缺陷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推計된 資料는 實際로 經濟計劃에 利用되었을 경우에 그 實効를 얻을 수가 없다. 세계로 印度에 있어서 方法論研究가 아직 進展되고 있지가 않다.

一般的으로 經濟調査에 있어서 方法論의 意義는 社會科學에서 議論되는 社會的 實驗(social experiment)에 두고 있다. 따라서 社會的 實驗을 위하여는 첫째 經濟的 必要條件에 대한 正確한 概念, 둘째 이러한 必要條件을 充足시키기 위한 組織的인 作業方針과 세계로 實行計劃에 따르는 各方針을 執行할 豫定表가 반드시 있어야 할 要件으로 指摘되고 있다. 低開發國에 있어서 農業分野에서의 諸必要條件에 대한 正確한 概念을 把握함으로써 窮極的으로 經濟開發을 推進하기 위하여는 經濟活動에 대한 動態的인 資料가 必要한 것이다. 그러나 實際로 經濟變動에 있어서 計量的인 重要變數가 무엇인가를 究明하는 어떤 方法을 갖지 않고서는 勿論 科學的인 假定이 없다면 統計資料蒐集은 不可能하게 된다. 이와같은 意味에서도 方法論研究는 低開發國의 經濟開發計劃을 完遂하기 위한 重要的한 課題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II

同書는 4篇으로 나누어 農業經濟에 대한 새로운 調査分析方法을 研究하였다. 그 中 第1篇은 史證에 依據한 叙論的인 考察을 하고 있다. 1章은 印度의 村落構造, 單一村落共同社會의 集團數, 機能과 相互關係 및 經濟的 社會的 條件等 印度農業經濟를 分析하였으며 特히 同書가 農業經濟를 分析對象으로 한 理由를 論述하였다. 同時에 2章에서는 이제껏 印度에서 實踐되어 온 村落研究에 대하여 分析하고 經濟調査方法論에 대한 새로운 問題點을 提示하고 있다.

2章에서는 經濟的 諸概念에 대한 再檢討를 加하였다. 즉『經濟的 諸事象은 理論的인 根據에 따라 解明되어야 하고 또한 이와 關聯하여 特有的 經濟的 概念을 思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後進的 經濟諸與件下에서는 반드시 그와같은 方法이 妥當한 것이 아니다.』그와 反面에 特定한 經濟事象을 調査 分析하는 統計學者들은 往往 統計資料를 分析하는데 그치고 그 以上の 創造的 課業을 遂行할 能力이 없을 뿐더러 여러 經濟패턴이 오로지 統計調査와 같은 手段에 의하여 完璧하고 正確한 模型을 抽出해 낼 수 없을만큼 複雜多樣的한 것이다. 따라서 經濟開發模型을 創造하기 위한 經濟調査에 있어서는 統計家는 단지 機械的인 位置에 놓여 있어서는 아니되며 調査方法에 관한 創造的인 機能을 遂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Mukherjee 教授가 印度經濟를 把握함에 있어서 低開發經濟 내지 自給自足的 經濟에 대한 많은 經濟的 定義를 一旦 整理한 後에 이와같은 定義에 立脚하여 論理的인 展開을 試圖하였다. 例컨대 同書에 있어서 所得, 價格, 賃金, 費用, 雇傭, 限界所有土地等의 概念을 自給自足的 交換經濟 혹은 低雇傭經濟라는 後進經濟社會條件을 前提로 하여 再定義하였다는 點은 後進經濟學徒들에게 有益한 指針이 될 것으로 믿는다. 즉 賃金勞動이 重要視되지 않는 家族經濟體制에 있어서 個人費用은 僅少할 뿐더러 勞動費는 大개 家計支出費와 同一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體制下에서는 價格 賃金 利潤이 生産의 障礙條件이 되지 않도록 家計支出은 最少限으로 抑制하는 것이다. 그러나 Mukherjee 教授가 同書에서 上記한 諸概念을 量的으로 把握하는 調査方法을 提起하였을 뿐 具體的으로 展開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感이 없지 않다. 이 點은 앞으로 斯界學徒의 研究課題가 될 것이다. 다만 同書에서는 從來의 調査方法에 관한 몇가지 是正點만을 指摘하였고 이를 通하여 自給自足的 村落共同社會의 經濟條件과 經濟關係를 究明코자 하였다. 特히 同書에서 經濟全般을 對象으로 하지 않고 農村地方에만 偏重한 것은 農業이 어디까지나 國民經濟의 主要部門이며 後進經濟에 있어서는 이를 基點으로

하여 社會發展이 相關的으로 展開된다는데 그 理由를 들고 있다. 그러면서도 工人 小商人 및 서비스從事者와 같은 小市民階級은 經濟體制의 巨視的 分析에 있어서 不可缺한 社會階級으로 思慮하여 村落共同社會의 權能을 考察하는데 있어서 全般的으로 論究되고 있다.

第 II 篇에서는 各章으로 나누어 前篇에서 提起한 經濟的 概念을 理論的으로 辯明하였다. 그리고 然後에 計量的 觀察을 通하여 그와같은 概念의 再整理를 試圖하였다. 이와같은 展開에 依據하여 印度經濟를 ‘閉鎖’ 내지 ‘脆弱’ 經濟로 規定한 教授는 그 構造的 原因을 自給自足經濟에 있어서의 低雇傭과 生業經濟 및 低所得營農에 緣由한다고 보았다.

閉鎖 내지 脆弱經濟라는 兩 特性은 事實上 同時的으로 發生하며 相關關係를 가지는 것이다. 이들은 한편 低雇傭狀態 또 한편 低限界營農(sub-marginal farming) 狀態를 究明함으로써 밝힐 수 있다함은 自明한 論理이다. 또한 低雇傭狀態에 관한 調査는 賃金과 所得에 관한 調査分析이 根底가 되어야 할 것이며 同時에 生産 및 低限界營農狀態에 대한 調査는 農家費用 農產物價格 및 分配過程에서 實行될 수 있을 것이다.

第 III 篇은 統計的 測定과 調査資料의 分析方法等 實際的이고 技術的인 側面을 考察하였다. 從來 標本調査施行에 있어서는 地域基準에 依據하여 任意的 抽出을 基礎로 하였고 資料蒐集은 個別的 接近方法을 取擇하였던 것이 一般的인 事例이었다. 이 點에 대하여 博士는 그와같은 標本調査方法이 과연 低開發地域의 經濟調査에 얼마나 有益한 것인가 하는데 크게 疑心을 두었다. 그리하여 同篇 10章에서는 標本調査에 관한 새로운 標本方案을 提起하는 同時에 最少限의 人口와 地域의 階層을 基準으로 하는 節次를 提示하였다. 즉 一般的으로 知識水準이 낮은 農民에게 年間的 經濟의 去來에 關하여 質疑하여 얻을 수 있는 資料는 不正確한 것이다. 따라서 去來度와 去來地點을 勘案하여 調査對象을 신중히 擇할 것을 提起하였다. 그러나 同書에서는 보다 徹底하게 數多한 標本調査方法에 대하여 理論的이고 實際的인 長短點을 論述치 못하고 있다.

調査資料의 分析에 關하여는 11章에서 두가지 새로운 方法을 提案하였다. 첫째는 즉 村落集團 內部的 部門間 내지 村落集團과의 사이에 發生하는 經濟的 去來를 Leontief의 「投入產出」方法에 依據 把握하려 하였다는 點이다. 이와같은 投入產出表는 첫째 國民經濟內에 차지하는 生産要素의 比重, 둘째 國民經濟가 閉鎖 내지 開放體系이나의 程度를 勘案하여 同時에 經濟成長 내지 衰退까지를 推論케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萬若 農民 또는 勞動者(一般的으로 生産의 企業에 從事하는)와 土地없는 農業勞動者等 相互間의 去來量은 減少되고 있는 反面에 村落과 村落 또한 村落集團과 他村落集團間(즉 國民經濟相互間)의 年去來量이 增加되고 있다면 同 經濟社會는 自給自足的이며 同時에 資源의 非効率的 利用段階에서 相互依存型的 開發된 「充分한」 雇傭狀態로 移轉됨을 나타낸다. 즉 이와같이 投入產出表를 利用함으로써 巨視的 經濟分析의 基礎를 이루는 것이다.

둘째로 經濟社會內에 發生되는 「其他所得」을 推計한다는 點이다. 從來까지 村落社會에 있어서 非農家所得 特히 專業과 서비스從事者의 所得 내지 支出에 관한 正確한 資料를 얻기는 보다 더 難處하였었다. 그러나 同書에서 總支出額과 非農業商品 및 서비스에 支出되는 額과의 比 그리고 支出源泉과 支出對象에 관한 資料를 獲得한 然後에 Keynes의 乘數法則을 利用하여 其他所得의 推計를 試圖하였다. 즉 農家내지 非農家 家計의 非現金支出에 대한 現金支出의 平均比率을 通하여 一定期間中の 諸企業의 「純」投資額을 算出한 것이다. 이를 다시 「乘數」方程式을 選用하여 同 社會에서 產出하는 追加所得의 推計値를 把握할 수 있으며 長期間에 걸쳐 보면 同 社會(내지 地域)의 平均消費性向이 一定하다는 前提下에서 이것을 「其他所得」이라고 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統計分析方法이 또한 現在 低開發諸國의 經濟調査에 있어서 반드시 合當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確實한 自身을 가질 수는 없다. 다만 經濟開發을 實際적으로 實踐코자 하는 立場에서 보면 그 適用 내지 發展에 努力할만한 價値가 있는 提案이라고 하겠다.

III

經濟調査方法의 研究에 관하여 一部 經濟學徒들은 그것이 資料分析의 手段을 改善하는데 不過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例컨대 觀察과 集計에 誤謬를 犯하고 있는 어떤 統計資料는 그것이 調査技術(techniques) 만으로도 改善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識者는 또한 調査方法論과 調査技術의 研究을 各各 別個의 것으로 區分하고 있다. 이들은 實證의인 統計調査以外에 歷史的 段階分析和 類推論, 論理學의 本質說明 및 方法等만이 옳로지 方法論(methodologies)이며 調査, 計算方法, 事例史證, 統計蒐集 등은 調査技術에 屬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見解는 스스로 큰 과오를 內包하고 있다.

調査方法論에 관한 研究에는 多分히 統計의이고 技術의인 問題뿐만 아니라 또한 調査되어야 할 正確한 經濟的 範疇의 形成 내지 이와같은 經濟的 範疇을 實證키 위하여 利用되었던 過去의 資料源과 範圍도 包含되어야 하는 것이다.

上述한 兩大見解 즉 純粹한 敘述 내지 分析論과 技術的接近論의 關係를 究明하는데 있어서 오늘날 數理經濟的方法을 利用하는것이 普通이다. 그리하여 Tinbergen 을 비롯한 여러 經濟學者들은 調査方法을 樹立함에 있어서 模型形式에 依據하는 完全體系方法(complete system method)을 利用하고 있다. 同方法是 簡單히 말해서 內生的 및 外生的變數의 相關關係를 說明하는 完全한 方程式體系를 말한다. 즉 經濟體制에 있어서 內生的 變數는 同體制「內部」의 要因 例들 들어 價格, 生産, 消費資源을 말하며 外生的 變數는 同體制「外部」의 要因 例들 들어 社會的 要因, 戰爭, 國家的災亂 等이다. 特히 이는 農業經濟를 調査研究하는 경우에 있어서 外生的變數(一般的으로 天候, 社會條件과 社會慣習과 같은 非經濟的 要因)이 同體制全體에 걸쳐 廣範한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더욱 重要한다. 따라서 科學的인 調査에 있어서 먼저 抽出 檢討되어야 할것은 外生的 및 內生的 變數에 대해서 다같이 應當한 重要性을 두어 分析이 行하여 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上記 方法을 應用하는데는 또 하나의 警戒해야 할 危險이 있다. 즉 「微視的 分析」과 「巨視的 分析」을 區分할 수 없다는 것이다. 前者는 孤立的으로 各各의 變數를 細密히 區分하여 分析함을 意味하며 後者는 體制를 하나의 全體로서 取扱하며 이것을 總計의으로 表現하는 方法이다. 低開發經濟를 研究함에 있어서 特定 變數를 細分하여 分析하는 것은 無意味하다. 왜냐하면 各 變數(內生的)의 相異한 單位가 同質的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點에서 本書는 村落共同社會研究에 있어서 同社會의 賃金水準 價格構造 所得構造의 個別的인 研究보다는 오히려 調査課題를 全體的으로 均衡條件이라든가 또는 體制問題를 前提로 하여 다루었다. 特히 本書가 蒐集된 資料를 「完全한 方程式體系」에 의하여 處理한 點은 諸低開發國이 共通的으로 當面하는 經濟調査를 위한 數理經濟學의 研究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Mukherjee 教授가 調査方法論의 基本的인 思考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社會科學分野에 있어서 特히 經濟의 內·外의 要因이 充分한 相互補完性을 가지지 못하는 同時에 가장 可變的인 要素가 人間要素로 되어 있는 農業支配的인 低開發經濟에 있어서는 唯一한 調査方法이 存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方法論은 具體的으로 相異한 經濟體制에 따라 各各 實證的 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